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

정치적 성향과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백신 접종에 미치는 영향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김혜정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사과정**

소담이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사과정***

본 연구는 정치적 성향과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접종 의도 및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를 설명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영향력을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조절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2(메시지와 정당기조: 불일치, 일치) 집단 간 설계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백신접종 진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오염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설문 절차를 마쳤다. 분석 결과,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에 있어 정당의 메시지가 정당의 본래 기조와 일치하지 않아도 무조건 수용하는 경향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와 정책지지에서 지지정당의 주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를 일면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음모론에 대한 신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에서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내포하는 함의를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KEY WORDS 코로나19 백신 · 정치적 성향 · 사회정체성 이론 · 음모론에 대한 신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

* 제1저자, 교신저자, kimyw@ewha.ac.kr

** 공동저자, leslie1982hj@gmail.com

*** 공동저자, wanidam2@hanmail.net

1. 서론

최근 한 조사 결과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한국 사회 전반의 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구원, 2021). 특히, 현재 한국 사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와 같은 편을 지지(82.5%)하며, 중도적인 의견은 무시되는 사회(71.4%),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과 편하게 정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사회(79.7%)로 인식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짐작건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점차 집단의 양극화로 치달고 있음을 스스로 체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정체성 관점(social identity perspective)에 기반을 두고, 집단 양극화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집단 편향이 일으키는 인지와 행동에 주목한다. 사회정체성 관점을 형성하는 두 이론은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 Turner, 1979)과 자기범주화 이론(self-categorization: Turner, 1985)이다. 사회정체성 이론은 실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집단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며, 사람들이 '우리'와 '그들'로 대상을 구분 짓고, 스스로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상대 집단보다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설명한다(Tajfel & Turner, 1979). 반면, 자기범주화 이론은 집단 간 관계에 주목한 사회정체성 이론과 달리 개인이 갖는 심리적인 집단 소속감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Turner, 1985). 이를 아우르는 사회정체성 관점은 자기 자신을 특정한 사회적 집단 소속감의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고, 집단을 구별 짓고 범주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내집단 편향과 외집단 편향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Hornsey, 2008). 특히,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의 사회정체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현저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내집단에서 형성된 합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내집단이 주는 정보 즉, 준거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Reicher, 1987; Turner et al., 1987).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의 인식, 태도, 행동의 전반에 걸쳐 집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맥락이다. 신종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이 큰 위험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도 다양한 의견 대립이 형성되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터너(Turner, 1985)에 따르면, 처음 겪거나 낯선 상황에서 내집단 구성원의 행동 또는 관점이 한 개인 스스로의 행동이나

관점에 단서를 제공해준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신종 감염병 사태와 백신을 둘러싼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집단의 메시지를 빠르게 수용하도록 하는 환경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정치적 의제로 점화되어 백신 확보 초기부터 줄곧 정치적 공방이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지지정당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코로나19 백신 인식이나 태도,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 접종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야는 백신 수급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020년 말부터 ‘백신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정부가 범정부백신구매단을 구성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보려면 하루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신속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물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수급에서 시기와 양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며 백신의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백신을 서둘러 맞는 것보다 감염병 확산 상황이 심각해 먼저 접종을 시작한 외국 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성이 검토된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에게 음모론은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특히, 보건 당국의 입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이기도 하다(Depoux et al., 2020). 음모론이 성행할수록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공포를 형성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지를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Constantinou et al., 2020). 한편,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은 곧 특정 사건의 배후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비밀조직이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Hornsey & Fielding, 2017). 이러한 음모론에 대한 신념은 공중보건 위기 시 흔히 목격할 수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방적 행동에 동참하지 않도록 영향을 끼친다(Carey et al., 2020).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태도, 행동 등에 미치는 집단의 영향력은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강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맥락에서 사람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지지정당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종 감염병과 같은 불확실한 위협 속에서

불거지는 내집단 편향은 준거집단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상관없이 지지정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해보는 작업은 공중보건 이슈인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실제로 정치화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이슈일 수록 음모론 신념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Enders et al., 2018)를 참고하면, 음모론에 대한 신념은 지지정당이 인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예컨대,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정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력이 보수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집단과 진보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집단(정당)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탐색해보는 과정은 기존 사회정체성 이론을 공중보건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접목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2. 문헌 연구

1) 사회정체성 관점과 위험 맥락

우리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 핵전쟁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험은 수면 위로 부상한 지 오래고(Innerarity & Solana, 2013), 이제는 건강이나 사회적 영역에서의 위험도 매일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더욱 위험을 확산한다. 이렇듯, 위험사회(Beck, 1992)가 지니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사람들의 위험인식과 실제 위험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과 더불어 사회적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다. 심리학적 접근이 개인의 특성을 규정하면서 개인의 심리적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면(Lauriola et al., 2014), 사회적 맥락의 접근은 위험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과 위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사고(groupthink)’ 또는 ‘또래압력(peer pressure)’ 등 사회적 차원에 집중한다(Myers & Lamm, 1976). 여기서 ‘집단’은 넓게는 문화, 좁게는 동호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위험인식이나 위험행동에 관한 사회맥락적 접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

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van Raalte et al., 2007).

이러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그들이 주로 정보를 나누고 의사소통하는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Greenaway et al., 2015; Platow et al., 2007).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개인의 위협인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사회 정체성 이론(Tajfel & Turner, 1979)과 자기범주화 이론(Turner et al., 1987)을 바탕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가 속한 ‘우리’와 우리가 아닌 ‘그들’로 대상을 구분 짓고자 하는 본성이 존재하고, 자아 존중감이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Tajfel & Turner, 1979). 구체적으로, 외집단 구성원에 비하여 내집단 구성원을 자기 자신과 더욱 유사하게 여기며(van Rijswijk et al., 2006), 더욱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하고(Reynolds & Oakes, 2000), 더욱 가치 있는 의견을 주장한다고 본다(McGarty et al., 1994). 또한, 내집단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내집단 구성원과 자신을 유사하게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Sassenberg et al., 2011), 특정행동이 내집단의 행위라고 믿을수록 그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더욱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Goldring & Heiphetz, 2020).

한편, 자기범주화 이론은 계층화된 사회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대변되는 집단 간 관계에 주목한 사회정체성 이론을 보완하여, 개인이 갖는 심리적인 집단 소속감에 관심을 두고 제안되었다(Turner et al., 1987). 즉,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심리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그러한 집단 과정의 심리 기초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Turner, 1985; Turner et al., 1987). 특히, 자기범주화 이론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사람들이 개별 인간으로 자아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자아를 정의하는 것으로 이동할 때, 집단 행동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한다(Turner, 1985). 그리고 자신을 특정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self-categorizing)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한다(Hornsey, 2008). 이러한 발견은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범주화하느냐가 곧 위협 판단과 행동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Reicher, 1987; Turner et al., 1987). 따라서, 자기범주화 이론의 핵심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다르다고 구별하는 인지심리적 과정에 있다. 결국, 이러한 양상은 사람들이 같은 집단 구성원들을 자신과 유사하게 간주해버리는 것에서 드러난다(Turner, 1985). 특히, 유사성은

신념뿐 아니라 심리적 기능 측면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터너(Turner, 1985)는 개인은 내집단 구성원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인지적 판단 역시 유사하게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처음 겪거나 낯선 위험 상황에서는 더욱 내집단 구성원의 관점 또는 행동이 한 개인 스스로의 인식과 행동에 지침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스타펠 등(Stapel et al., 1994)은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제시한 내집단 편향과 외집단 배척이 위험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위험 인식에 미치는 사회정체성과 가용성 편견(availability bias)의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연구를 통해, 내집단에 적용된 위험정보가 제시될 때 외집단 정보를 주거나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았을 때보다 가용성 휴리스틱을 통한 위험 판단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사람들이 더 쉽게 떠올리는 사례일수록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여기거나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한다(Tversky & Kahneman, 1973). 스타펠 등(Stapel et al., 1994)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자기범주화 이론의 틀 안에서 특정 위험 정보에 대한 자기관련성(self-relevance) 인식이 같은 집단에 속하거나 동일한 사회정체성을 공유할 때 유사성을 기반으로 더욱 증대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나와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내집단에 적용된 위험 상황에 대해 그 발생확률과 발생빈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크루위스 등(Cruwys et al., 2020)은 위험수용(risk taking)에 미치는 공유된 사회정체성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위험수용의 사회정체성 모델(social identity model of risk taking)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위험수용이 개인의 충동성 또는 규범적 영향의 결과로만 설명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공유된 집단 소속감으로부터 발현되는 신뢰가 위험인식을 낮추고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밖에도 사회정체성 관점을 차용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정체성 이론을 토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집단을 선택하고, 어떻게 그들이 선택한 집단의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Hogg & Reid, 2006). 최근까지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적 정체성은 인종(Whitaker, 2020), 고객-기업 정체성(Rui Ma et al., 2021) 등으로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정치적 성향은 사회정체성 이론이나 자기범주화 이론에서 꾸준히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정치 심리학 분야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사람들의 사회적 삶을 이끄는 데 필수적인 가치 체계로 보기도 한다(Jost,

Federico, & Napier, 2009). 따라서, 코로나19 맥락과 같이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을 통해 사회정체성 이론을 조명하는 것은 이론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2) 정치적 성향의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치화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사회정체성 관점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하는 기준으로 정치적 성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이 사회 전반의 위기를 불러오는 위협은 정치적인 이슈로 점화되어 정치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van Bavel et al., 2020). 이렇게 위협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화하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유대와 결속이 힘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Crimston & Selvanathan, 2000).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협 상황에서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안감이나 공포가 심해질수록 정치적 신념을 기준으로 맹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Cohen, 2003). 코헨(Cohen, 2003)은 설득에서 집단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맹목성을 고찰하기 위해 네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정당(민주당, 공화당)이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지 여부인 준거집단(reference group) 정보의 유무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정책 내용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준거집단 정보가 없을 때 개인의 신념과 정책에 따라 태도가 결정되었는데, 즉 진보 성향의 사람은 복지정책에 대해 보편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보수 성향의 사람은 긴축적인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준거집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진보 성향의 사람과 보수 성향의 사람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을 자신의 태도로 여겼고,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정책 내용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객관적인 정책의 내용보다는 전적으로 정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졌는데, 실제로 보수 성향의 사람은 공화당이 보편적인 복지를 옹호할 때도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진보 성향의 사람은 민주당이 긴축적인 복지를 주장할 때도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본래 기조와 상반되는 정책을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을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는 사람들이 정책을 평가할 때 자신의 신념이나 정책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우선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인식과 행동

의 단서를 자신이 속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의 메시지에서 찾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맥락에서 정치적 성향은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볼 만하다. 사라 등(Sarah et al., 2020)은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유럽, 미주, 아시아의 10개 국가에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우려(concern)가 높게 나타났으며, 바이러스와 관련한 개인 경험, 친사회적 가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바이러스에 대해 듣는 것, 정부·과학·의료진에 대한 신뢰,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 지식, 개인 및 집단 효능감이 위험인식의 예측 변수로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위험인식의 예측 변수 중 정치적 성향(진보·보수)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필수록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정치적 성향이 유의한 예측 변수로 나타난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에서도 이슈가 정치화되어 있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와 정책 지지에도 정치적 성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1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심원섭, 2020, 12, 23; 이혜진, 2020, 12, 23)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안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 중 84.4%가 ‘긴급성 우선’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82.5%가 ‘안전성 우선’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치적 성향으로 살펴보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67.4%가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의 73%가 ‘해외와 국내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좀 더 검증한 후에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BS가 2021년을 맞아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신속성과 안전성 중 우선시하는 것이 달랐는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안전성(72.1%)’에,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신속성(60.4%)’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정치적 성향과 상당히 일치함을 보여준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주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최근 연구 결과들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을 잘 설명해준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의 수용성을 정부신뢰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황선재 등, 2021)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백신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 역시 확인되었다. 즉,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일 때보다 야당일 때 백신 수용성이 낮았으며, 뚜렷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야당과 비슷한 백신 수용성을 보였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 정치적 쟁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백신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신뢰를 공고히 하고, 국민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백신접종 문제를 정파적 논쟁으로 소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주요 신문의 사설을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설이 백신 문제를 과학기술 위험 이슈가 아닌 제도정치권의 쟁점사안으로 접근하였고, 취재원으로 정치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장미경·민영, 202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이 과학기술 및 의학 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의 등장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언론보도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이슈가 정치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이 연구들의 결과로 미루어보건대, 코로나19 백신 맥락에서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이 두드러져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정체성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하기에 좋은 맥락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 태도, 행동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사회정체성을 통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즉, 사회정체성 관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의에 접근해보면, 자신을 특정 정당의 지지자로 규정하고 정당소속감을 갖는 개인이 내집단의 규범을 곧 위험 상황에서 자신이 따라야 하는 행동의 지침이자 기준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내집단의 영향을 받는지, 지지정당의 메시지가 실제로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접종의도,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메시지와 정당기초가 일치할 때,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신속성)을 신속성(안전성)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연구가설 2.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메시지와 정당기초가 일치하지 않을 때, 코로나19 백신 신속성(안전성)을 안전성(신속성)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연구가설 3.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4.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코로나19 백신 정책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3) 음모론에 대한 신념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반응을 관리하는 보건 당국의 관점에서 특히 어려운 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나 음모론이 널리 퍼지는 상황이다(Depoux et al., 2020).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은 곧 특정 사건의 배후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비밀조직이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Hornsey & Fielding, 2017). 이러한 음모론에 대한 신념은 공중보건 위기 시 흔히 목격할 수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방적 행동에 동참하지 않도록 영향을 끼친다(Carey et al., 2020).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음모론이 생성되기에 좋은 조건인데, 그 이유는 상황 자체가 두려움을 유발하며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연구가 코로나19에 관한 음모론이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Allington et al., 2020; Constantinou et al., 2020; Freeman et al., 2020),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음모론은 바이러스의 근원지, 코로나19 안전수칙(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또는 백신 개발의 이유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Ball & Maxmen, 2020). 특히 주목할 것은, 코로나19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수록 정부의 팬데믹 대응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타난 연구 결과이며(Georgiou et al., 2020),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손 씻기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Freeman et al., 2020).

실제로, 말릭 등(Malik et al., 2020)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팬데믹을 종식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백신 접종을 망설이게 하는 잘못된 정보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요르단과 쿠웨이트 등 아랍지역 국가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중의 태도를 파악하고, 코로나19 백신 수용과 음모론적 신념의 관계를 살펴해보았다. 연구 결과,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자연발생 or 인간에 의한 발명)과 백신에 대한 음모론적 신념이 강할수록 백신 접종의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버틴 등(Bertin et al., 2020)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음모론에 대한 신념과 백신 태도 및 접종도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강할수록 백신의 과학성에 대해 부정

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음모론에 대한 신념과 백신에 대한 태도를 탐색한 기존 연구들은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가진 부모들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Callaghan et al., 2019), 백신을 반대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Hornsey et al., 2018),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백신 과학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는 연구(Lewandowsky et al., 201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독립변수로 하여 백신 태도 및 접종의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HIV 검진에 대한 흑인 여성들의 태도 변화에 있어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조절 역할을 살펴본 연구에서, HIV와 관련한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HIV 검진을 권고하는 개입 이전과 이후의 태도 변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od et al., 2020). 구체적으로, HIV 검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일 때,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강할수록 HIV 검진을 권고하는 개입 이후에 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모론에 대한 신념과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엔더스 등(Enders et al., 2018)은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개인이 지닌 선유 경향으로서의 음모론적 사고와 정치적 성향을 두고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해보았다. 미국에서 누구나 한 번쯤 접해 보았을 음모론 중 4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각 음모론의 속성에 따라 음모론적 사고와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특정한 주제에서 정치적 성향이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는 데 음모론적 사고방식보다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동기화된 합리화(motivated reasoning)’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이슈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동기로 작용하여 상대 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 음모론을 더욱 믿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동기화된 합리화’는 잠재적인 심리 메커니즘으로 개인이 기존의 신념, 태도, 감정을 토대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메커니즘이 정치적 현상을 판단하고 합리화하는 것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Kunda, 1990; Lodge & Taber, 2013).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코로나19 백신 맥락에서 사람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치적 성향과의 상호작용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 백신 접종 논의가 정치화될수록 사람들의 판단은 동기화된 합리화의 영향을 받아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과연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미치는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이 조절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접종의도, 정책지지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조절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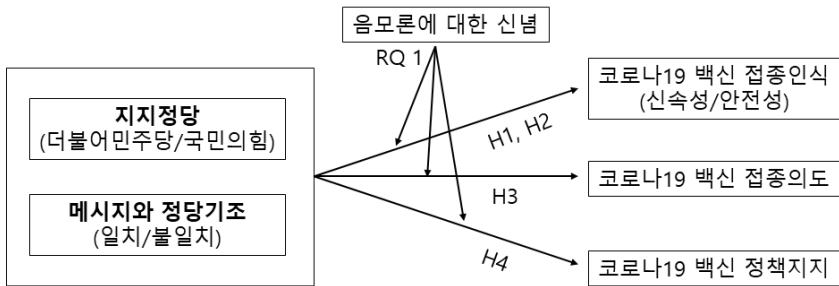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실험 절차

본 연구는 2(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2(메시지와 정당기조: 불일치, 일치) 집단 간 요인설계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조사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성별과 연령, 지지정당을 고려한 할당표집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문 첫 단계에 지지정당을 질문하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의 정당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설문에서 탈락하도록 하여, 두 정당의 지지자만을 표본으로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연구 참여자는 총 26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가 각각 134명으로 동일하였다. 각 134명의 정당지지자들은 메시지 조건을 달리한 하위집단에도 동일한 숫자로 67명씩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1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진행되었

으며, 이 기간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2021년 2월 26일보다 앞선 시기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실제로 접종하기 이전에 모든 실험 절차가 종료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음모론에 대한 신념 문항에 응답한 후, 각기 주어진 자극물(정당 메시지)을 읽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접종의도, 정책지지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였다.

2) 실험 처치

(1)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자극물을 처치하였다. 자극물은 정당 메시지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먼저, 지지정당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순으로 대표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메시지와 정당기조의 일치여부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구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각 정당의 기조(더불어민주당: 안전성 강조, 국민의힘: 신속성 강조)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때, 각 정당의 기조는 백신 도입 초기의 언론보도와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상정하였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논의되던 초기에 보도된 기사(메디컬옵저버, 2020. 12. 18; 한겨레신문, 2020. 12. 14; KBS 뉴스, 2021. 01. 01)의 내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과 방역이 먼저라는 입장’, ‘국민의 힘, 백신이 먼저다’ 등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각 정당의 기조를 더불어민주당(여당)은 안전성을 우선하고, 국민의힘(야당)은 신속성을 우선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원섭, 2020, 12, 23; 이혜진, 2020, 12, 23; KBS 신년여론조사, 2021).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메시지와 정당기조가 불일치하는 조건은 정당 메시지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메시지와 정당기조가 일치하는 조건은 정당 메시지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메시지와 정당기조가 불일치하는 조건은 정당 메시지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메시지와 정당기조가 일치하는 조건은 정당 메시지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2) 자극물 조작점검

독립변수인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가 적절하게 조작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조작점검 문항에 대한 응답을 먼저 분석하였다. 조작점검 문항은 총 4개로 구성되었으며, 지지정당의 구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이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와 ‘국민의힘이 발표한 내용이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신속성을 강조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강조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확인하였다. 이때, 메시지가 정당의 기조와 일치하는가를 응답자에게 직접 묻는 것은 응답을 유도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기존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정당의 기조를 결정해놓고, 메시지를 보고 응답자들이 어떤 내용이 강조되었는지 잘 파악하는가를 통해 조작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극물 조작점검 성공 여부는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지지정당의 구분에 대한 조작점검 결과, 더불어민주당($t = 13.449, p < .001$)과 국민의힘($t = -15.578, p < .001$)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메시지의 정당기조 일치 여부에 대한 조작점검 결과, 신속성 강조($t = 20.977, p < .001$)와 안전성 강조($t = -10.441, p < .001$) 사이의 차이 역시 유의하였다. 이로써 독립변수에 대한 자극물 조작은 성공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다음과 같다.

Group A. 더불어민주당 × 메시지와 정당기조 불일치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신속성이 최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백신 접종은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공격적인 백신 확보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접종을 시작한 백신은 높은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집단 면역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백신을 빨리 확보하고 접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Group B. 더불어민주당 ×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최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

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유럽의 백신 접종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방식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Group C. 국민의힘 ×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국민의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신속성이 최우선!”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백신 접종은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공격적인 백신 확보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접종을 시작한 백신은 높은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집단면역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백신을 빨리 확보하고 접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Group D. 국민의힘 × 메시지와 정당기조 불일치

“국민의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최우선!”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유럽의 백신 접종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방식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신속성, 안전성, 정치쟁점인식)

본 연구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공방이 전개되던 시기에 진행되었다. 정치적인 공방은 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간의 대립 구도로 드러났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컬옵저버, 2020. 12. 18; 한겨레신문, 2020. 12. 14; KBS 뉴스, 2021. 01. 01). 또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KBS 신년 여론조사, 2021. 1. 1.)에 따르면, 국민 역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인식을 안전성과 신속성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은 신속성과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더불어 과연 코로나19 백신을 얼마나 정치적인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신속성에 대한 중요도는 '귀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측정하였으며,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는 '귀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하다')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평균은 신속성이 3.49($SD = 0.95$), 안전성이 4.62($SD = 0.62$)로 분석되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정치쟁점인식은 신속성 점수와 안전성 점수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하여, 0부터 4까지의 범위로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정치쟁점인식 평균은 1.19($SD = 1.02$)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는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에 관한 선행연구(Yang, 2012)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귀하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 기회가 생긴다면 접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귀하의 친구나 가족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유하시겠습니까?'의 2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크롬바흐 알파값이 .95였으며, 응답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 평균은 3.44($SD = 0.97$)로 나타났다.

(3) 종속변수: 코로나19 백신 정책지지

코로나19 백신 정책지지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된 내용으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진술문은 '나는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하도록 한 것을 지지한다', '나는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한 것을 지지한다', '나는 개인이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를 선택하여 접종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지지한다', '나는 코로나19 백신을 의료진부터 우선 접종하도록 한 것을 지지한다'를 포함한다. 모든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크롬바흐 알파값이 .78이었으며, 응답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지지 평균은

3.68($SD = 0.82$)로 나타났다.

(4) 조절변수: 음모론에 대한 신념

본 연구는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접종의도, 정책지지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영향을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조절하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은 곧 특정 사건의 배후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비밀조직이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Hornsey, & Fielding, 2017). 이러한 신념이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수의 선행연구(Callaghan et al., 2019; Hornsey et al., 2018; Lewandowsky et al., 2013)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특히 공중보건 위기에서 백신접종과 관련한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모론에 대한 신념과 정치적 성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Enders et al., 2018)를 통해 동기화된 합리화에 따라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이슈일수록 음모론을 더욱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화된 코로나19 백신 맥락에서는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조절변수로 포함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선행연구(Soveri et al., 2020)를 참고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에는 숨은 조직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에는 제약회사들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에는 경제적 이득이 깔려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어낸 것이다’의 네 가지 진술문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항목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크롬바흐 알파값이 .90이었으며, 응답자들의 음모론에 대한 신념 평균은 2.17($SD = 1.04$)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코로나19 확진 경험 여부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코로나19 확진 경험 여부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네 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코로나19 확진 경험 여부를 포함하여 총 5가지 변수를 통제하였다. 응답자는 총 268명으로 남성 134명(50.0%), 여성 134명(50.0%)이었으며, ‘만 나이’로 측정된 평균 연령은 45세로 나타났다($SD = 14$, $Min = 19$, $Max = 74$). 응답자의 평균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76명(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소득 수준은 월 300-400만원 수준이 49명(18.3%)로 가장 많았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경험은 ‘없다’가 265명(98.9%), ‘있다’가

3명(1.1%)이었다.

4) 주요 변수의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의 신뢰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95), 백신 정책지지(.78), 음모론에 대한 신념(.90)의 크롬바흐 알파 값이 전부 .70 이상으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두 문항의 상관계수를 추가로 확인하였다($r = .90, p < .01$).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지정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 백신 정책지지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음모론에 대한 신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신속성 인식은 정치쟁점인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 백신 정책지지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인식은 정치쟁점인식, 백신 정책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 백신 정치쟁점인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는 백신 정책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음모론에 대한 신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정책지지는 음모론에 대한 신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여부	코로나19 백신 신속성인식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인식	코로나19 백신 정치 쟁점 인식	코로나 19 백신 접종의도	코로나 19 백신 정책지지	음모론에 대한 신념
지지정당	.00	.024	-.10	-.03	-.18**	-.33**	.26**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031	-.02	-.02	-.01	.01	.04
코로나19 백신 신속성 인식			.08	-.79**	.33**	.23**	-.06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인식				.43**	.05	.26**	-.04
코로나19 백신 정치쟁점 인식					-.19**	-.04	.04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						.61**	-.32**
코로나19 백신 정책지지							-.31**

** $p < .01$

5)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접종의도, 정책지지에 각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연구가설 1~4), 이러한 영향력이 응답자의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연구문제 1)를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가설 1~4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0.0을 이용하여 이원배치 공변량 분산분석(two-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이때, 공변량에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코로나19 확진 경험 여부를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SPSS 20.0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1)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접종 의도, 정책지지에 각각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접종의도, 정책지지에 대한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각각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배치 공변량 분산분석(two-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이때 공변량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코로나19 확진경험 여부를 넣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과 해석을 간단히 제시하기 위해 표에서는 생략하였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이원배치 공변량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기술통계치와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지지정당	메시지와 정당기조	코로나19 백신 신속성 인식 M(SD)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인식 M(SD)	코로나19 백신 정치쟁점인식 M(SD)	코로나19백신 접종의도 M(SD)	코로나19 백신 정책지지 M(SD)
더불어 민주당	불일치 (신속성강조)	3.63(0.76)	4.64(0.57)	1.04(0.86)	3.63(0.96)	3.89(0.78)
	일치 (안전성강조)	3.31(0.93)	4.72(0.52)	1.40(1.05)	3.59(0.87)	4.01(0.68)
	합계	3.47(0.86)	4.68(0.54)	1.22(0.97)	3.61(0.91)	3.95(0.73)
국민의힘	불일치 (안전성강조)	3.30(1.03)	4.61(0.70)	1.37(1.03)	3.26(0.86)	3.47(0.73)

지지정당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코로나19 백신 신속성 인식 M(SD)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인식 M(SD)	코로나19 백신 정치쟁점인식 M(SD)	코로나19 백신 접종지도 M(SD)	코로나19 백신 정책지지 M(SD)
	일치 (신속성강조)	3.73(1.02)	4.49(0.66)	0.94(1.09)	3.26(1.14)	3.36(0.91)
	합계	3.51(1.05)	4.55(0.68)	1.16(1.08)	3.26(1.01)	3.42(0.83)
합계	불일치	3.46(0.92)	4.63(0.63)	1.21(0.96)	3.45(0.93)	3.68(0.78)
	일치	3.52(0.99)	4.60(0.60)	1.17(1.09)	3.43(1.02)	3.69(0.87)
변수		ANCOVA(F-value)				
		코로나19 백신 신속성 인식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인식	코로나19 백신 정치쟁점인식	코로나19 백신 접종지도	코로나19 백신 정책지지
지지정당		0.20	3.39	0.30	9.01**	31.68***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0.15	0.09	0.10	0.02	0.00
지지정당 ×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10.74**	1.66	10.31**	0.07	1.46

** $p < .01$, *** $p < .001$

기술통계치에 따르면, 신속성 인식에서 지지정당에 상관없이 신속성 강조 메시지를 본 집단이 안전성 강조 메시지를 본 집단보다 신속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성 인식에서도 안전성 강조 메시지를 본 집단이 신속성 강조 메시지를 본 집단보다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정당의 기조와 불일치하는 신속성 강조 메시지를 본 후에도 신속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원배치 공변량 분산분석 결과는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에 관한 내용과 접종지도 및 정책지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에서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는 코로나19 백신 신속성 인식($F = 10.74$, $p < .01$)과 정치쟁점인식($F = 10.31$, $p <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상호작용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 경우에 정당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신속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제시되어도 그 메시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메시지의 본질적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메시지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신속성 인식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정치쟁점인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메시지와 정당기조가 일치하는 안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볼 때 정치쟁점인식이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정당기조가 일치하지 않는 안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볼 때 정치쟁점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성 메시지를 지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치적인 쟁점화를 더욱 인식한다고 볼 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맞서 비판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치 쟁점화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 메시지에서 그러한 인식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 및 정책 지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와 정책 지지에서는 지지정당의 주효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F = 9.01, p < .01$), 코로나19 백신 정책 지지($F = 31.68, p < .001$)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M = 3.61, SD = 0.91$)는 국민의힘 지지자($M = 3.26, SD = 1.01$)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가 높았고, 코로나19 백신 정책 지지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M = 3.95, SD = 0.73$)가 국민의힘 지지자($M = 3.42, SD = 0.83$)보다 높았다. 한편,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주효과는 모든 종속변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식과 정책 지지에 있어, 제시되는 메시지가 정당기조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지지정당의 영향력만이 관찰된 것으로, 정당을 중심으로 극명하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어떤 메시지도 지지하는 정당의 영향력을 뛰어넘지 못했다.

2)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조절 효과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식, 접종 의도,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종속변수에 따른 분석 결과,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조절효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모형은 1단계($F = 11.12, p < .001$), 2단계($F = 6.36, p < .001$) 그리고 3단계($F = 6.17,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1.2%(수정된 R제곱은 10.2%)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12.8%(수정된 R제곱

은 10.7%)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 14.2%(수정된 R제곱은 11.9%)로 나타났다. 그리고 R제곱 변화량을 보면, 2단계 모형에 비해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R^2 변화량 = .02, $p < .05$).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81로 2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주효과($\beta = -0.29$, $p < .001$)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2단계에서도 역시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주효과($\beta = -0.30$, $p < .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주효과($\beta = -0.31$, $p < .001$)와 지지정당,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상호작용($\beta = -0.13$, $p < .05$)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지정당,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4.13		28.82***	4.14		28.93***	4.12		28.84***
	지지정당	-0.20	-0.10	-1.72	-0.20	-0.10	-1.72	-0.19	-0.10	-1.59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0.00	-0.00	-0.02	0.00	0.00	0.02	0.07	0.04	0.60
	음모론에 대한 신념	-0.28	-0.29	-4.86***	-0.29	-0.30	-4.93***	-0.30	-0.31	-5.14***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	지지정당 ×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0.03	0.03	0.49	0.02	0.02	0.36
	지지정당 × 음모론에 대한 신념				0.06	0.06	1.05	0.07	0.07	1.18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 음모론에 대한 신념				-0.11	-0.11	-1.78	-0.08	-0.08	-1.30
	지지정당 ×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 음모론에 대한 신념							-0.13	-0.13	-2.13*
	F			11.12***			6.36***			6.17***
	adjR ²			.10			.11		.12	
	ΔR^2						.02		.02*	

* $p < .05$, *** $p < .001$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대한 지지정당,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은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을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조절한다는 의미이다. 이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저집단(n = 150)과 고집단(n = 118)으로 나누어 각각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음모론에 대한 신념 강도에 따른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음모론에 대한 신념_저집단			음모론에 대한 신념_고집단		
지지정당	메시지와 정당 기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	지지정당	메시지와 정당 기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
더불어민주당	불일치 (신속성강조)	3.87(0.82)	더불어민주당	불일치 (신속성강조)	3.08(1.03)
	일치 (안전성강조)	3.78(0.79)		일치 (안전성강조)	3.22(0.90)
	합계	3.83(0.80)		합계	3.15(0.95)
국민의 힘	불일치 (안전성강조)	3.35(0.79)	국민의 힘	불일치 (안전성강조)	3.18(0.94)
	일치 (신속성강조)	3.81(1.01)		일치 (신속성강조)	2.91(1.09)
	합계	3.55(0.91)		합계	3.03(1.03)
합계	불일치	3.66(0.84)	합계	불일치	3.14(0.96)
	일치	3.79(0.87)		일치	3.02(1.04)

각 집단별 이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집단에서는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F = 3.76$, $p < .05$)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고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F = 1.10$, $p = .296$). 이러한 결과를 좀더 심화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음모론에 대한 신념 하위 40%를 저집단(n = 119), 상위 40%를 고집단(n = 118)으로 나누어 각각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저집단에서만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유의성과 상관없이, 저집단과 고집단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결과에 대한 비교 차원의 해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약한 저집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M = 3.87, SD = 0.82)는 메시지와 정당기조가 일치하지 않을 때(신속성 강조) 국민의힘 지지자(M = 3.35, SD = 0.79)보다 접종의도가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자(M = 3.81, SD = 1.01)는 메시지와 정당기조

가 일치할 때(신속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M = 3.78, SD = 0.79$)보다 접종의도가 높았다. 또한 이 결과를 다르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메시지와 정당기조의 일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할 의향이 일정하게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는 메시지와 정당기조가 일치(신속성 강조)하는 경우에만 접종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강한 고집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M = 3.22, SD = 0.90$)는 메시지와 정당기조가 일치할 때(안전성 강조) 국민의힘 지지자($M = 2.91, SD = 1.09$)보다 접종의도가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자($M = 3.18, SD = 0.94$)는 메시지와 정당기조가 일치하지 않을 때(안전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M = 3.08, SD = 1.03$)보다 접종의도가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메시지와 정당기조가 일치할 때, 음모론에 대한 높은 신념과 반응하여 백신 접종 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강한 고집단에서는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음모론 저집단에 나타났던 상호작용이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높아짐에 따라 사라지는 경향에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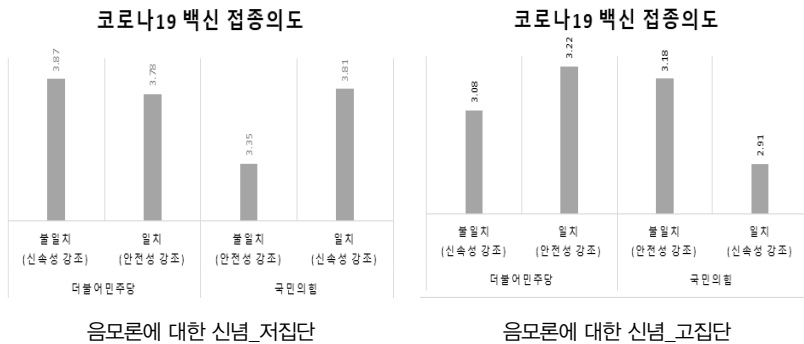


그림 2. 음모론에 대한 신념 강도에 따른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5. 결론 및 논의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이 가진 불확실성과 함께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수급 문제 등이 국민의 불안을 높이고 있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코로나19 백신의 확보 단계에서부터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지,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인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였다. 이러한 정치적 공방은 국민들의 분열에도 일조하였는데, 공영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성과 안전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은 질문에 응답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기조와 같은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성향으로 나뉘는 집단 간 갈등과도 연관이 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내집단으로 하여 지지정당의 목소리를 편향적으로 수용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외집단을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사회정체성 관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감을 지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지,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를 독립변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과 접종의도 그리고 정책지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신속성, 안전성, 정치쟁점인식), 접종의도 및 백신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이다. 총 5가지의 종속변수에 대해 검증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에서 신속성 인식과 정치쟁점인식에 관해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주어진 메시지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기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신속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았을 때 그 내용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국민의힘 지지자 역시 정당의 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안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접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의 신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치쟁점인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 모두 안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볼 때 정치쟁점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정부의 기조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치쟁점으로 인식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는 쪽으로 정치쟁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람들은 메시지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메시지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코로나

19 백신에 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제시한 내집단 편향의 맥락에서 지지정당의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원래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공중보건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점이다. 위험과 직결되는 사안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위험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구성원 간에 합의점을 모색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위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Crimston & Selvanathan, 2000). 더구나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환경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그들의 관점을 외부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게 만든다(Iyengar & Masseay, 2019). 따라서, 위험 문제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판단의 기준을 세운다면 위험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논의가 형성되기보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대변되는 정치적인 논리에 매몰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으로,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각 종속변수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서 지지정당,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평균 기준으로 저집단과 고집단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강도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대한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음모론에 대한 신념 집단에 따라 결과가 상반된다는 점인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낮은 저집단에서는 메시지가 정당기조와 불일치하더라도 접종의도가 높았지만, 고집단에서는 메시지가 정당기조와 일치할 때 접종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음모론에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지지정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고르게 영향을 받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는 메시지와 정당기조가 일치하는 경우에 더 영향을 받았다. 한편, 음모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비록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지지정당이 평소 기조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내보냈을 때에 지지하는 정당이 표방하는 본래의 행동의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정당기조와 일치하는 메시지의 경우에 백신 접종의도가 높아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는 정당기조와 일치하는 메시지의

경우에 백신 접종의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화된 합리화(motivated reasoning)’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동기화된 합리화’는 잠재적인 심리 메커니즘으로 개인이 기존의 신념, 태도, 감정을 토대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Kunda, 1990; Lodge & Taber, 2013). 즉, 코로나19 백신 맥락에서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차이가 자신의 지지정당이 동기로 작용하여 정당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이끌어낸 것이다. 다시 말해,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지지정당과 결합하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사람들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중점을 두었던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백신 접종인식에서 신속성 인식과 정치쟁점인식에 관해 지지정당 그리고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이 검증됨으로써 부분적으로 백신의 정치화를 확인하였다. 즉,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정당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내용에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의 이슈에서도 정당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만큼 의제가 정치화되었음을 방증한다. 둘째, 지지정당의 주효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와 정책지지에서 유의한 것으로 관찰됨으로써 또 한 번 정치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도와 백신 정책지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려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며, 사회정체성 이론이 주장하는 내집단 편향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서 정치적 성향이 주요한 사회정체성의 기준이 되어 지지정당에 따른 정치화가 이루어졌지만,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강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정치화된 의제에서 지지정당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이 음모론에 대한 신념의 강도에 따라 흔들리거나 혹은 고착화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해 보건대,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의제가 정치화의 면모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이념 갈등, 내집단 편향, 정치적 양극화, 사회분열 등을 사회정체성 관점에서 지지정당 즉, 정당소속감이 갖는 영향력을 조명해보고자 코로나19 백신 맥락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정치적 의제가 아닌 공중보건 이슈인 코로나19 백신 맥락에서도 지지정당으로 분열하여 내집

단 편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지지정당의 메시지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준거집단(본 연구에서는 지지정당)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자신의 본래 신념이나 가치관에 상관없이 준거집단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Cohen, 2003)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결과가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정치적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것에서 더 나아갔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험 사안에서도 확인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이 정치권의 논리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매몰되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경향은 결국 위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인 역량을 모으고 결집하는 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며, 오히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사회가 분열되는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김영욱, 2021).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 적절한 개인의 대응행동이나 정부의 정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맹목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목격되는 위험 문제의 정치화는 단순히 회피되어야 할 상황 이라기보다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에서 위험의 정치화를 계기로 정치가들이 대응성을 높이고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의 제도가 정착한 것(정병걸·성지은, 2008)을 참고하면, 우리나라도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위험에 대한 축소나 갈등 대립을 벗어나 위험 문제의 정치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정당 간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시민참여나 공개적 토론 등을 통해 위험의 정치화를 수용하고,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미치는 영향력 역시 고려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실험 설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 실험 자극물에 대한 조작을 점검할 때, 메시지가 정당의 기조와 일치하는가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이는 조작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응답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택한 우회적인 방법이었으나, 실제로 응답자들이 메시지와 정당 기조의 일치여부를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인식했는지는 연구의 한계로 남을 수 있다. 둘째,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정당기조와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

가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을 해석하고자 했으므로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제시하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연구 설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제시하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정당기조와 불일치하는 메시지를 보았을 때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정당기조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보았을 때 반응에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 설계 시, 음모론에 대한 신념을 조절변수로 투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단 세분화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지지정당 2개와 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만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상대정당의 메시지(메시지와 정당기조: 일치 vs. 불일치)에도 노출되도록 설계하여, 기본 집단을 총 8개 그룹으로 세분화한다면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메시지가 정당기조와 불일치하더라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지지정당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도 즉, 지지 강도에 따른 차이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국민의힘 지지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모두 지지 강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메시지에 대한 맹목성을 더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지지정당 외에 지지 강도로 집단을 세분화하여 차이를 살펴보고, 정치적 극단화가 낳는 사회적 문제로 논의를 확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나현 (2020, 12월 18일). 코로나19 대유행...국회에서는 백신 확보 두고 여야 '공방전'. *매디컬옵저버*, Retrieved September 19, 2021 from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78>
- 김미나 (2020, 12월 14일). 국민의힘, 불안과 열망을 파고드는 '백신 심리전' 왜? *한겨레신문*, Retrieved September 19, 2021 from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4141.html>
- 김영욱 (2021). *위험불통사회: 위험과 과학의 민주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접근*. 서울: 이화여대출판사.
- 심원섭 (2020, 12월 23일). 백신 접종도 진보 보수 갈리나? 국민의 힘 지지층 '긴급성' 84.4% vs. 민주당 '안전성' 82.5%. *Cnb News*, Retrieved November 29, 2021 from https://m.cnbnews.com/m/m_article.html?no=473208#cb
- 이중근 (2021, 1월 1일). 신년 여론조사, “코로나 블루 심해졌다” 61.9%...자영업자, 주부 더 '취약'. *KBS 뉴스*, Retrieved September 19, 2021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5405&ref=A>
- 이혜진 (2020, 12월 23일). '코로나 백신'도 보수-진보 의견 대립...“서둘러야” vs. “안전히”. *매일신문*, Retrieved November 29, 2021 from <http://news.imaail.com/page/view/2020122309475391682>
- 장미경, 민영 (2021). COVID-19 백신 보도의 정치화와 극화: 주요 언론의 사실 분석. *과학기술학연구*, 21(3), 139~173.
- 정병길, 성지은 (2008). 정치화된 위험과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 *과학기술학연구*, 8(2), 27~56.
- 황선재, 길정아, 최슬기 (2021). 코로나19 백신 수용성: 정부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2), 95~120.
- Allington, D., Duffy, B., Wessely, S., Dhavan, N., & Rubin, J. (2020). Health-protective behaviour, social media usage and conspiracy belief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Psychological Medicine*, 51(10), 1763~1769.
- Ball, P., & Maxmen, A. (2020). The epic battle against coronavirus misinformation and conspiracy theories. *Nature*, 581(7809), 371.
- Beck, U. (1992). From industrial society to the risk society: Questions of survival, social structure and ecological enlightenment. *Theory, Culture and Society*, 9(1), 97~123.

- Bertin, P., Nera, K., & Delouee, S. (2020). Conspiracy beliefs, rejection of vaccination, and support for hydroxychloroquine: A conceptual replication-extension in the COVID-19 Pandemic context. *Front. Psychol*, *11*, 565128.
- Callaghan, T., Motta, M., Sylvester, S., Trujillo, K. L., & Blackburn, C. C. (2019). Parent psychology and the decision to delay childhood vaccin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238*.
- Calvillo, D. P., Ross, B. J., Garcia, R. J. B., Smelter, T. J., & Rutchick, A. M. (2020). Political ideology predicts perceptions of the threat of COVID-19 (and susceptibility to fake news about i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8), 1119~1128.
- Carey, J. M., Chi, V., Flynn, D. J., Nyhan, B., & Zeitzoff, T. (2020). The effects of corrective information about disease epidemics and outbreaks: Evidence from zika and yellow fever in Brazil. *Science Advances*, *29*(6).
- Cohen, G. L. (2003). Party over policy: The dominating impact of group influence on politic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08~822.
- Constantinou, M., Kagialis, A., & Karekla, M. (2020). COVID-19 Scientific facts vs. conspiracy theories: 0-1: Science fails to convince even highly educated individuals. *Research Square*.
- Crimston, C. R., & Selvanathan, H. P. (2000). Polarization. In J. Jetten, S. D. Reicher, S. A. Haslam & T. Cruwys (Eds.), *Together apart: The psychology of COVID-19* (pp. 107~112). London: Sage.
- Cruwys, T., Greenaway, K. H., Ferris, L. J., Rathbone, J. A., Saeri, A. K., Williams, E., Parker, S. L., Chang, M. X. L., Croft, N., Bingley, W., & Grace, L. (2020). When trust goes wrong: A social identity model of risk t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 Depoux, A., Martin, S., Karafillakis, E., Preet, R., Wilder-Smith, A., & Larson, H. (2020). The pandemic of social media panic travels faster than the COVID-19 outbreak. *Journal of Travel Medicine*, *27*(3).
- Earnshaw, V. A., Eaton, L. A., Kalichman, S. C., Brousseau, N. M., Hill, E. C., & Fox, A. B. (2020). COVID-19 conspiracy beliefs, health behaviors, and policy support. *Translational Behavioral Medicine*, *10*(4), 850~856.

- Enders, A. M., Smallpage, S. M., & Lupton, R. N. (2018). Are all Birthers conspiracy theoris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piratorial thinking and political orientat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 849-866.
- Freeman, D., Waite, F., Rosebrock, L., Petit, A., Causier, C., East, A., Jenner, L., Teale, A., Carr, L., Mulhall, S., Bold, E., & Lambe, S. (2020). We should beware of ignoring uncomfortable possible truths (a reply to McManus et al.). *Psychological Medicine*, *52*(3), 1~1.
- Georgiou, N., Delfabbro, P., & Balzan, R. (2020). COVID-19-related conspiracy belief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erceived stress and pre-existing conspiracy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6*.
- Goldring, M. R., & Heiphetz, L. (2020). Sensitivity to ingroup and outgroup norms in the association between commonality and mor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1*, 104205.
- Greenaway, K. H., Wright, R. G., Willingham, J., Reynolds, K. J., & Haslam, S. A. (2015). Shared identity is key to effective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2), 171~182.
- Hogg, M. A., & Reid, S. A. (2006). Social identity, self-categorization, and the communication of group norms. *Communication Theory*, *16*(1), 7~30.
- Hornsey, M. J. (2008). Social identity theory and self-categorization theory: A historical revie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204~222.
- Hornsey, M. J., & Fielding, K. S. (2017). Attitude roots and Jiu Jitsu persuasion: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motivated rejection of science. *American Psychologist*, *72*(5), 459~473.
- Hornsey, M. J., Harris, E. A., & Fielding, K. S. (2018). The psychological roots of anti-vaccination attitudes: A 24-nation investigation. *Health Psychology*, *37*(4), 307~315.
- Innerarity, D., & Solana, J. (2013). *Humanity at risk: The need for global governance*. Bloomsbury Publishing USA.
- Iyengar, S., & Massey, D. S. (2019). Scientific communication in a post-truth socie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16*(16), 7656~7661.
- Jost, J. T., Federico, C. M., & Napier, J. L.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307~337.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480~498.

- Lauriola, M., Panno, A., Levin, I. P., & Lejuez, C. W. (2014). Individual differences in risky decision making: A meta-analysis of sensation seeking and impulsivity with the balloon analogue risk task.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7*(1), 20~36.
- Lazer, D. M., Baum, M. A., Benkler, Y., Berinsky, A. J., Greenhill, K. M., Menczer, F., Metzger, M. J., Nyhan, B., Pennycook, G., Rothschild, D., Schudson, M., Soloman, S. A., Sunstein, C. R., Thorson, E. A., Watts, D. J., & Zittrain, J. L. (2018). The science of fake news. *Science*, *359*(6380), 1094-1096.
- Lewandowsky, S., Gignac, G. E., & Oberauer, K. (2013). The role of conspiracist ideation and worldviews in predicting rejection of science. *PLOS ONE*, *10*(8), e0134773.
- Lewin, K. (1948). Cultural reconstruction. In G. Lewin (Ed.), *Resolving social conflicts: Selected papers on group dynamics* (pp. 34~42). New York, NY: Harper and Row.
- Lodge, M., & Taber, C. S. (2013). *The rationalizing vot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ik, A. A., McFadden, S. M., Elharake, J., & Omer, S. B. (2020). Determinants of COVID-19 vaccine acceptance in the U.S. *Eclinical Medicine*, *26*, 100495.
- McGarty, C., Haslam, S. A., Hutchison, K. J., & Turner, J. C. (1994). The effects of salient group membership on persuasion. *Small Group Research*, *25*(2), 267~293.
- Myers, D. G., & Lamm, H. (1976). The group polarization phenomenon. *Psychological Bulletin*, *83*(4), 602~627.
- Pennycook, G., & Rand, D. G. (2019). Lazy, not biased: Susceptibility to partisan fake news is better explained by lack of reasoning than by motivated reasoning. *Cognition*, *188*, 39~50.
- Platow, M. J., Voudouris, N. J., Coulson, M., Gilford, N., Jamieson, R., Najdovski, L., Papaleo, N., Pollard, C., & Terry, L. (2007). In-group reassurance in a pain setting produces lower levels of physiological arousal: Direct support for a self-categorization analysis of social influ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4), 649~660.
- Reicher, S. D. (1987). Crowd behaviour as social action. In J. C. Turner,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 M. S. Wetherell (Eds.),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sation theory* (pp. 171~202). Oxford, UK: Basil Blackwell.

- Reynolds, K. J., & Oakes, P. J. (2000). Variability in impression formation: Investigating the role of motivation, capacity, and the categorization proc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3), 355~373.
- Rui, M., Jacob, C., Wen-Hsien, T., Muhammad, S. S., Li, H., & Susana, A. (2021). The relationship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digital platforms, electronic word-of-mouth, and consumer-company identification: An applic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Sustainability*, *13*(9), 4700.
- Sarah, D., Rschneider, C. R., Kerr, J., Freeman, A. L. J., Recchia, G., et al. (2020). Risk perception of COVID-19 around the world. *Journal of Risk Research*, *23*(7-8), 994~1006.
- Sassenberg, K., Matschke, C., & Scholl, A. (2011). The impact of discrepancies from ingroup norms on group members' well-being and motiv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7), 886~897.
- Soveri, A., Karlsson, L. C., Antfolk, J., Lindfelt, M., & Lewandowsky, S. (2020). *Unwillingness to engage in behaviors that protect against COVID-19; The role of conspiracy beliefs, trust, reactance, and endorsement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Progress.
- Stapel, D. A., Reicher, S. D., & Spears, R. (1994). Social identity, availability and the perception of risk. *Social Cognition*, *12*(1), 1~17.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cademic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urner, B. S. (1985). Religion and social theory. *Religious Studies*, *21*(4), 625~626.
- Turner, J. C., & Oakes, P. J. (1997). The socially structured mind. In C. McGarty & S. A. Haslam (Eds.), *The message of soci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mind in society* (pp. 355~373). Blackwell Publishing.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Basil Blackwell.
- Tversky, A., & Kahneman, D. (1973).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5*(2), 207~232.

- Van Bavel, J. J., Baicker, K., Boggio, P. S., Capraro, V., Cichocka, A., et al. (2020).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Nature Human Behaviour*, 4, 460~471.
- Van Leeuwen, F., & Park, J. H. (2009). Perceptions of social dangers, moral founda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3), 169~173.
- Van Raalte, J. L., Cornelius, A. E., Linder, D. E., & Brewer, B. W.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hazing and team cohesion. *Journal of Sport Behavior*, 30(4), 491~507.
- Van Rijswijk, W., Haslam, S. A., & Ellemers, N. (2006). Who do we think we are? The effects of social context and social identification on in-group stereotyp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1), 161~174.
- Whitaker, M. C. (2020). Us and them: Using social identity theory to explain and re-envisi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 in urban schools. *The Urban Review*, 52, 691~707.
- Yang, Z. J. (2012). Too scared or too capable? Why do college students stay away from the H1N1 Vaccine? *Risk Analysis*, 32(10), 1703~1716.

최초투고일: 2022년 1월 26일 • 심사일: 2022년 2월 21일 •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23일

Abstract

The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es:

The Impact of Political Orientations and Conspiracy Beliefs on COVID-19 Vaccination Acceptance

Yungwook Kim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and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Hyejung Kim

Doctoral Candidate, Communication and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Dam-yi So

Doctoral Student, Communication and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political orientations and conspiracy beliefs on the perceptions of COVID-19 vaccines, behavioral intention to, and policy support for COVID-19 vaccination. Specifically, this research focused on explaining how much COVID-19 vaccination discourses have been politicized by political orientations, and whether this politicization can be moderated by conspiracy beliefs. A 2 (for the two major Korean political parties: Democratic Party/People Power Party) × 2 (for a message's political consistency: inconsistent/ consistent) between-subject factorial experiment was conducted before the nationwide vaccination drive began to prevent data contamination. The results partly show that people tend to blindly accept the message presented by their supporting party even though the contents of the message were inconsistent with the party's prior arguments and messages.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intentions to vaccinate and policy support, the main effect of the supporting party was consistently observed. These results provide supporting evidence for the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es. The study also confirmed that conspiracy beliefs modera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upporting party and the political consistency by the messages in the intention to vaccinat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communication based on the social identity theory.

KEY WORDS

COVID-19 vaccine • Political orientations • Social identity theory •

Conspiracy beliefs •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 First Author, Corresponding Author, kimyw@ewha.ac.kr

** Co-Author, leslie1982hj@gmail.com

*** Co-Author, wanidam2@hanmail.net